

도심 소극장에 두편의 연극 잔잔한 감동... 오싹한 공포

극단 이어도 창작극 '원위치' 상처 치유하는 새로운 가족들

아이잡컴퍼니 여특선 '조각' 세이레아트센터서 두 달 공연 토요일 밤에는 심야극장 운영

제주 도심 소극장에 연극 두 편이 올려진다. 극단 이어도의 창작극 '원위치'와 더위를 물리칠 연극 '조각'이다.

연극인 김광흥이 이끄는 극단 이어도의 '원위치' (강명숙 작, 송정혜 연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가족

을 잃은 할매와 손녀인 하리,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아이인 보리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연을 그려냈다. 통상적인 잣대로 가족의 범주를 나누는 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김정희 교수연 강명숙 김병택 이선숙 정승국이 출연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 (청소년 50% 할인). 이달 13~14일 오후 4시와 7시 미에랑 소극장. 문의 064)722-5254.

스릴러 연극을 표방한 '조각'은 서울 대학로에서 임소문이 난 작품이다. 비 내리는 어느 여름날, 회태와 순철이 은행을 털고 폐가에 머물면서 이야기가 벌어진다. 인적 드문 곳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과



제주시 중앙로 미에랑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극단 이어도의 창작극 '원위치'.

수수께끼처럼 얽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웃음과 공포 속에 하나씩 맞춰지는 반전의 묘미가 있다.

이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아이잡컴퍼니는 제주 지역 배우와 스태프들이 제주 실정에 맞게 '조각'을 재창조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9

월 29일까지 (수~일요일) 세이레아트센터.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와 10시, 일요일 오후 7시에 공연된다. 토요일 밤 10시 심야극장이 이색적이다. 네이버, 인터파크티켓, 예스24 등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1688-4878. 전선희기자

무대로 불러내는 제주신화 '불도맞이'

오유정 연출 마로 허튼굿 굿음악과 생명춤 어울림

제주신화 '불도맞이'를 소재로 굿음악과 춤이 어울리는 무대가 있다.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의 7월 허튼굿이다.

불도맞이 굿놀이 중에서 마누라 본풀이를 새롭게 해석한 이번 작품은 마로 수석단원 오유정의 연출로 선보인다. 새 생명을 점지하고 아이를 보살피는 맹진국 따남야기(삼승

할망), 아이와 어머니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주고 아프게 하는 동해웅궁 따남야기(구할망)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사연을 심방이 풀어 나가며 본격적으로 공연이 펼쳐진다.

단원들은 음악과 춤,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관객들을 제주신화의 세계로 이끈다. 이들은 "제주굿은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제주의 역사"라며 이 작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출자 오유정씨는 이번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는 '청년유망



매달 허튼굿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서순실 심방에게 제주굿을 배우며 허튼굿을 준비했다는 그는 앞으로 지방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를 모티

프로 한 공연도 만들어볼 예정이다. 공연 일정은 이달 10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소극장. 문의 064)722-0129. 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판

<160>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 "기여, 불고룡혼 노을이 분분한 물결광 어울러져 총말 바당이 평화로워서, 경호곡 술술부는 브름광 물결이 서로 속삭이듯 흐렸주. 바당 조뚜디 모살더미엔 봉황새가 쉼 뿌려신디사 해양꽃뿔이 이디저디 피어이선. 경호난 큰 생이 봉황 주둥이가 그 모살 이신디로 밭아부난 나신고라 그초록 곱닥하게 피엿뎠 흐여라. 경호곡 꽃 내음살이 브름결 탄 성산 앞바당에 막둑흐였주께."

* 제주어 풀이

*불고룡혼다(불고소룡혼다, 불곱소룡혼다, 불그름소룡혼다) : <그림>발그레하다. *분분하다 : <그림>날이 맑으면서, 바람이 없고, 물결이 매우 잔잔하다. *모살(물레) : <이름>모래. *해양하다(해양하다, 해양하다, 해양하다, 해양하다, 해양하다, 해양하다, 해양하다) : <그림>하얗다. *밭아부난 : 밭으니까. *곱닥하다(곱닥글락하다, 곱들락하다) : <그림>곱다랗다. *피엿뎠 흐여라 : 피었다고 하더라. *꽃(고장, 꽃) : <이름>꽃. *내음살(내우살, 내음새, 내음이, 냄새, 냄이) : <이름>냄새.

-부호-<이름><이름><이름>(명사)/<그림><그림>(형용사)/<움직><움직>(동사)/<어찌><어찌>(부사)/<대어><대어>(대명사)/<생><생>(수사)/<느낌><느낌>(감탄사)/<조><조>(조사)/<때><때>(대명사)/<의문><의문>(의문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가시나물 사람들의 삶과 언어를 찾아

제주어연구소 제주어 강좌 영평동서 구술채록 등 진행

제주시의 한 마을에서 제주어의 가치를 캐내는 작업을 벌인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이사장 강영봉)가 두 차례에 걸쳐 펼치는 '가시나물(영평동) 사람들의 삶과 언어' 주제 제주어 강좌다.

1차 강좌는 제주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가시나물을 찾아 구술 자료를 채록한 뒤 조사된 녹음 자료를 풀어쓰고 제주어 구술 교재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강의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매주 한 차례씩 3시간 동안 꾸려진다. 선착순 20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 채록된 자료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에 진행하는 2차 강좌인 제주어 구술강독회 교재로 쓰인다. 도민 강좌에서는 가시나물 마을 이해, 가시나물 마을 생업·음식·주거·옷 이야기 등 영평동 사람들의 삶과 언어를 배우도록 이끈다.

제주어연구소는 이와함께 제주어 마을 활성화에 위해 금등리 노인회 등이 참여하는 '금등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책 만들기 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준 사연을 책으로 엮어서 금등리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의 064)722-220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5회 제주색소폰페스티벌

제주도색소폰협회(회장 고평욱)가 주최하고 파하마색소폰앙상블이 주관하는 제5회 제주색소폰페스티벌이 이달 13~14일 오후 8시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린다.

첫날에는 제주사랑색소폰앙상블,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이 출연한다. 둘째 날에는 제주색소폰앙상블, 울산돌핀색소폰앙상블, 파하마색소폰앙상블이 무대에 오른다. 울산 팀이 제주를 찾은 등 색소폰동아리 전국 교류 무대로 단체별 연주와 합주가 잇따른다.

사운드파티 '자파리 날리리'

관객 참여형 사운드 파티 '자파리 날리리'가 이달 14일 오후 5시 서귀포 문화베타리중전소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디자인과 음악을 결합한 이색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운드아티스트 이한주를 중심으로 첼리스트 문지운, 일렉기타 타일러 브라운이 함께 만든다. 어린이의 상상으로 장난기 가득한 즉흥 사운드를 통해 즐거운 상상으로 소통하는 무대다. 악기 등 작은 음악 도구를 지참해 참여하면 더 좋다. 문의 064)738-5855.

라틴밴드 '큐바니즘' 공연

여성 7인조 라틴밴드 '큐바니즘'이 이달 13일 오후 7시 서귀포관광극장 무대에 오른다.

큐바니즘은 아프로쿠반을 연주하는 라틴밴드로 멤버 전원이 작곡, 작사, 편곡, 코러스 등을 소화한다. 살사, 볼레로, 차차차, 메렝게, 모잠비께, 단손과 레게톤에 이르는 중남미의 격정적인 큐반리듬을 바탕으로 탄탄한 연주실력을 선보인다. 서귀포시가 주최하는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 위탁사업으로 관람료 무료. 문의 064)732-1963.

'노리아 학교가자' 공연

국립제주박물관은 '토요박물관 산책' 하반기 첫 프로그램으로 이달 13일 오후 2시와 5시 박물관 강당에서 '노리아 학교가자'를 공연한다.

'노리아 학교가자'는 4교시 수업을 설정해 그림자극, 과학놀이, 샌드아트, 풍선 매직쇼,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짜였다.

여러 콘텐츠를 친근감 있는 캐릭터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다. 공연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권을 배부한다. 문의 064)720-803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